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14. 6. 제15권 2호, pp. 259~284.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

이 지 경*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BK 21 플러스$^{+}$ 연구교수
안 성 우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5개 대학에 입학한 장애대학생 9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에는 대학진학, 프로그램, 교육비, 근로경험, 대학 교육과정 참여,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6.4%의 장애대학생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였고, 대부분이 전공강의를 중심으로 6개에서 10개 사이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6.3%의 장애대학생들이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62.6%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그룹 과제 참여', '교육과정만족', '교육환경만족',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 부분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교 내의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 성별, 인식

* 제1저자, 교신저자(jikyunglee@gmail.com)

www.kci.go.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세계 인권 선언, 1948; 헌법 제10조). 이러한 권리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사회의 정보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달리 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변화에 잘 순응하고, 질 높은 삶을 향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습득과 지식의 재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삶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훈련이 필요하다(강순원, 2013).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교육'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력을 신장시켜 주기 때문에 직업 현장에서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장애인들에게 능력을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김동일 외, 2004; 박환보, 양희준, 김기석, 2009). 실제로 대학교육의 기회와 고학력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준다(윤상은, 이달엽, 2011).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실시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로 장애인 대학교육의 새 장이 열린 후, 대학교육으로의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1995년 전국 6개 학교 107명의 입학으로 시작된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2009년에는 모두 90개교로 확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이후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 16.5%는 일반학생의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 권장되고 실시되어 이미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이근영, 유명해, 2009). 또한 장애학생 대학교육을 위한 국가적 정보 기술 지원센터나 자문위원회, 교수자료 접근개선 지원 모형 프로그램 등도 이미 실시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하여 대학교육으로의 접근을 위한 협력적 조치들도 마련되었다(정동영, 2012).

최근 우리나라도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12), 장애대학생들의 잦은 학사경고나 휴학, 그리고 높은 중도 탈락률(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교 내에서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먼저 장애대학생들의 어려움은 입학전형 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 최지영(2009)의 연구에서 특별전형제도의 문제점들이 언급되었다.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정작 장애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www.kci.go.kr

김미선, 박중휘(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또 하나의 차별” 내지는 “반쪽의 기회”로 간주되어 학생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특별전형 전공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계열에 한정되어 있거나 장애학생이 원하는 전공은 특별전형이 허용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장애대학생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감당해야 한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인하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소득분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실제적으로 줄어들어 등록금 조달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학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학생들이 학업 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건강 문제로 학업 수행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김미선, 박중휘, 2013), 일반학생보다 학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밤을 새워 수업 준비를 해야 함으로 인해(김형일, 2012; 최지영, 2009) ‘동아리 활동 참여’, ‘대학 내 대인관계’ 혹은 ‘근로경험’ 같은 학업 외적 대학생활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김형일, 2012; 최지영, 2009). 이렇게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적 경쟁에서 뒤쳐지고, 성적 위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함으로 인해 등록금 조달의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대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교 교내 근로의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최지영, 2009).

대학 교육에 있어서 장애대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마도 학업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이현수, 2009).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참여보장과 학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심리·문화적 환경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학 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김미선, 2012; 김자경, 강혜진, 2008). 다른 문제들과 아울러, 장애학생을 향한 일반학생들의 낮은 이해도는(박재국, 2008; 윤점룡, 김주영, 2002) 그들이 진정한 ‘대학 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김미선, 박중휘, 2013).

장애대학생들의 대학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학생들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인식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김형일(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업활동과 관련하여 ‘과제부과’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도서관 시설자체’나 ‘대학 내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 내 대인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장애대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대인 관계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밝혔다. 김형일(2012)의 연구에 참여한 장애대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일대일 교수법(tutoring)’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 부분에서 장애대학생들은 교수자의 요구와 학교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지영, 2009). 학생들은

www.kci.go.kr

녹음 파일이나 도우미의 도움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분히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대학생들 개인의 요구에 따른 대학교육 활동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성별 또한 대학교육 활동의 인식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이다. 미국에서는 졸업 후 대학교 학사학위를 가진 여성 장애대학생의 취업률(19.8%)이 남성 장애대학생 취업률(29.3%)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Day & Foley, 2008). 이러한 여성 장애대학생들이 취업 전선에서 좋은 인력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대학교육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 특유의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Bremer, 2008).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남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학업수행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시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 성별에 따른 학습활동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박순희, 2012).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학업수행·활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체적 경험과 관찰을 요구하는 학습 활동' 부분에 인식이 더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추상적인 경험과 능동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학습활동' 부분에서는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lson과 Trudeau(1991)의 연구에서는 10세에서 17세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 성별에 따른 '수업과목, 수업준비, 점수, 시험에 대한 긴장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과목점수가 높았지만, 수학에서는 남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와 자신감을 보였고, 수업준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elson & Trudeau, 1991). 반면에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없다고 조사된 연구들도 있다. 대만에서 실시된 일반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타났고(Ku & Chang, 2011), 미국에서는 대학진학을 앞둔 장애고등학생들의 '진학관련 수업의 난이도'나 '점수'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Brien, 2011).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학업 수행도, 언어능력의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역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조사되지 않았다(Vogel, 1990).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남녀 장애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성별에 따른 대학 수업활동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시각, 청각, 그리고 지체장애대학생들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대부분의 장애대학

www.kci.go.kr

생들을 위한 대학교육 실태조사들이 진학이나 대학 프로그램 경험 혹은 교육비용 등 대학생활 및 수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보다는 주로 학습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실태(김용욱, 김남진, 우이구, 2008; 박화문, 2003; 백유순, 2005; 우정현, 2009; 정정진, 이해균, 2006), 교육환경과 보조공학 서비스에 관한 만족도(채희태, 2011),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대학교육 정책의 법 제도적 연구(이경준, 2008)와 관련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 장애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및 수업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여러 장애 유형을 포함한 장애대학생인구의 대학생활 및 수업과 관한 실태를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장애 유형을 포함한 장애대학생인구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국 25개 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마친 장애대학생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설문지 회수 후, 이들은 19세에서 22세 사이에 4급에서 6급사이의 장애진단을 받은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장애유형은 정서 행동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설문지에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타 장애이다. 이들 모두는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결과분석에 사용된 연구 대상자들의 정보(예: 성별)를

www.kci.go.kr

포함한 기초배경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기초배경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나이	19세	60 (60.6)
	20세	11 (11.1)
	21세	23 (23.2)
	22세	5 (5.1)
	계	99 (100.0)
성별	남자	54 (54.5)
	여자	45 (45.5)
	계	99 (100.0)
장애유형	정서 행동장애	19 (19.2)
	학습장애	11 (11.1)
	의사소통장애	11 (11.1)
	시각장애	10 (10.1)
	청각장애	5 (5.0)
	지체장애	4 (4.0)
	기타 (무응답 포함)	46 (46.5)
	계	99 (100.0)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택형 설문지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설문지로 설문 문항들은 국내문헌 최지영(2009)과 남궁수(2010)의 연구(Cronbach's alpha=.92)와 현주 외(2006)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국외문헌 Baker와 Sirky(1984)의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Cronbach's alpha=.91), PISA 2000 (OECD, 2001), 그리고 Pintrich 외(1993)의 자료를 검토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과정 통합교육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10명과 특수교육 전공 교수 2인, 일반교육 전공 교수 5명, 장애대학생 부모 2명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문항,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인식에 관한 문항들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감수를 통해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측정도구의 반응 양식은 문항에 따라 선택형, 개방형, 또는 평정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매우 적게, 전혀 걱정하지 않음, 매우 소극적, 전혀

www.kci.go.kr

걱정 되지 않음, 매우 불만족, 전혀 그렇지 않음' 은 1, '적게, 별로 걱정되지 않음, 소극적, 거의 하지 않음, 불만족, 그렇지 않음' 은 2, '보통, 어느 정도 걱정 됨, 가끔' 은 3, '많이, 매우 걱정됨, 적극적, 자주, 만족, 그렇다' 는 4, '매우 많이, 매우 적극적, 항상, 매우 만족, 매우 그렇다' 는 5로 기술되었다.

선택형과 개방형 문항을 제외한 평정형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0로 산출되었다. 조사 도구의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아래의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설문지의 설문영역과 문항내용

영역		문항내용	반응양식	문항수	Cronbach's Alpha
배경정보		• 성별 • 나이 • 장애유형(등급)	선택형/개방형	3	N/A
대학생활·수업의 실태	대학진학	• 대학진학 전형방법 • 대학지원관련 부모의 영향	선택형/개방형	13	N/A
	대학 강의 및 프로그램 경험	• 대학 강의 강좌 수 및 학점 • 대학 강의수강 경험			
	대학 교육비 & 근로경험	• 지출 등록금과 수혜 장학금 • 근로경험 • 등록금 마련에 대한 걱정			
대학생활·수업의 인식	대학 교육과정 참여에 관한 인식	•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 인식	평정형	5	.67
		• 개인 학습과정 인식	평정형	5	.73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업수행 적응력인식	• 대학생활 만족도 인식	평정형	5	.80
		•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	평정형	6	.61
계				37	.80

* N/A: Not Applicable(해당사항 없음)

3. 조사방법

1) 예비조사

완성한 설문지를 특수교육전문가 5명과 10명의 장애대학생에게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의 타당성, 소요시간, 단어선정, 문항구성의 문제점

www.kci.go.kr

등을 파악한 후, 문항의 재 기술과 항목첨가 그리고 문항이동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2년 7월 9일부터 2012년 11월 2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응답 전에 조사자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설문지 응답방법 등을 연구 대상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보조원들과 해당 학교의 협력 하에 설문지 140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 120부(85.7%)가 회수되었다. 이중응답이나 무응답이 많은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99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첫째, 문항과 반응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백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과 관련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대학생활 및 수업의 실태

2012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수업과 관련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진학', '대학 강의 및 프로그램 경험', 그리고 '대학 교육비 및 근로경험' 이 먼저 조사되었다.

1) 대학진학

장애대학생의 대학진학 전형방법에 관한 실태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www.kci.go.kr

<표 3> 대학진학 전형방법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전형방법	일반전형	63 (63.6)
	정원 내 특별전형 (특기자, 등)	15 (15.2)
	정원 외 특별전형 (재외국민, 등)	21 (21.2)
	계	99 (100.0)

<표 3>과 같이 전체 응답자 99명 중 전체 학생의 63.6%(63명)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했다' 고 응답했다. 그리고 '특별전형' 진학률은 36.4%(36명)였다.

한편,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지원관련 부모의 영향에 관한 실태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지원관련 부모의 영향 (대학진학여부 결정 vs. 지원 대학 결정)

구분		인원수 (%)	*M*	*SD*
대학지원관련 부모의 영향 (대학진학여부 결정)	매우 적게	7 (7.1)	3.41	1.12
	적게	11 (11.1)		
	보통	32 (32.3)		
	많이	32 (32.3)		
	매우 많이	17 (17.2)		
	계	99 (100.0.)		
대학지원관련 부모의 영향 (지원 대학 결정)	매우 적게	7 (7.1)	3.17	1.09
	적게	19 (19.2)		
	보통	34 (34.3)		
	많이	28 (28.3)		
	매우 많이	11 (11.1)		
	계	99 (100.0.)		

이상의 <표 4>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남녀 장애대학생의 대학지원관련 대학진학여부 결정과 지원 대학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평균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대학진학여부 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 (M=3.41, SD=1.12)이 '지원 대학 결정' (M=3.17, SD=1.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 대학 강의 및 프로그램 경험

장애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한 대학 강의 수 및 학점에 관한 실태는 <표 5>와 같이 조사되었다.

www.kci.go.kr

<표 5> 대학 강의 수 및 학점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구분		인원수 (%)
과목 강좌 수	1~5개 사이	5 (5.1)	이수과목 학점	1~11학점 사이	7 (7.1)
	6~10개 사이	80 (80.4)		12~18학점 사이	40 (40.4)
	10개 이상	14 (14.5)		19학점 이상	52 (52.5)
	계	99 (100.0)		계	99 (100.0)

이상의 <표 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 학기에 강의를 '6~10개 사이를 듣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0.4%(80명)로 가장 많았고, 이수과목 학점은 '19학점 이상'이 52.5%(52명)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학생들의 대학 강의수강 경험에 대한 실태는 <표 6>과 같다.

<표 6> 대학 강의수강 경험 (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계 (%)
대학 강의수강 경험 (대학 제공 프로그램)	전공 강의 수강	예	59 (59.6)	99 (100.0)
		아니오	40 (40.4)	
	진로 및 취업지도프로그램 수강	예	37 (37.4)	99 (100.0)
		아니오	62 (62.6)	
	외국어 프로그램 수강	예	27 (27.3)	99 (100.0)
		아니오	72 (72.7)	
	현장체험 프로그램 수강	예	23 (23.2)	99 (100.0)
		아니오	76 (76.8)	
	사회서비스 관련 강의 수강	예	20 (20.2)	99 (100.0)
		아니오	79 (79.8)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 수강	예	18 (18.2)	99 (100.0)
		아니오	81 (81.8)	
	일대일 교수법 프로그램 수강	예	14 (14.1)	99 (100.0)
		아니오	85 (85.9)	

이상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한 대학 강의는 '전공 강의 수강(59.6%, 59명)'이 가장 많았고, '일대일 교수법 프로그램 수강(14.1%, 14명)'이 가장 적었다.

3) 대학 교육비 및 근로경험

다음으로, 학생들의 지출 등록금과 수혜 장학금 실태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www.kci.go.kr

〈표 7〉 지출 등록금과 수혜 장학금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구분		인원수 (%)
지출 등록금	없음	1 (1.0)	수혜 장학금	없음	62 (62.6)
	113~400만원	57 (57.6)		45~200만원	24 (24.2)
	420~800만원	39 (39.4)		230~465만원	9 (9.1)
	무응답	2 (2.0)		무응답	4 (4.1)
	계	99 (100.0)		계	99 (100.0)

이상의 <표 7>에 의하면, 학생들의 지출 등록금은 '113~400만원 사이'가 57.6%(57명)로 가장 많았고, 수혜 장학금은 '없다'가 62.6%(6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기 중 근로경험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학기 중 근로경험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구분		인원수 (%)
근로 경험 (학기 중)	했음	26 (26.3)	근로 종류 (학기 중)	과외지도	2 (2.0)
	하지 않음	68 (68.7)		교외근로	22 (22.2)
	무응답	5 (5.1)		교내근로	2 (2.0)
	계	99 (100.0)		무응답	73 (73.7)
				계	99 (100.0)

이상의 <표 8>에 의하면, 학기 중 근로를 하지 않은 학생이 68.7%(68명)로 근로를 한 학생 26.3%(26명)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22.2%(22명)은 '교외근로'를 했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 걱정에 대해 물었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등록금 마련에 대한 걱정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
등록금 마련에 대한 걱정	전혀 걱정되지 않음	11 (11.1)
	별로 걱정되지 않음	34 (34.3)
	어느 정도 걱정됨	38 (38.4)
	매우 걱정됨	16 (16.2)
	계	99 (100.0)

www.kci.go.kr

이상의 <표 9>에 의하면, 장애대학생 응답자들의 54.6%(54명)가 등록금 마련에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걱정됨' 이라고 응답했다.

2.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성별 인식

여기에서는 두 부분, 즉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와 개인 학습과정' 에 관한 인식과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와 개인 학습과정에 관한 인식

먼저 학생들의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에 대한 인식은 아래 <표 10>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10>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 인식

구분	토론참여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남	5(9.3)	15(27.8)	19(35.2)	9(16.6)	6(11.1)	54(100)	3.17	3.01	1.07	5
녀	3(6.7)	7(15.6)	21(46.7)	10(22.2)	4(8.8)	45(100)				
전체	8(8.1)	22(22.2)	40(40.4)	19(19.2)	10(10.1)	99(100)	*df*=4			
구분	질문제기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남	3(5.6)	13(24.1)	19(35.2)	16(29.6)	3(5.5)	54(100)	3.91	3.04	.90	4
녀	1(2.2)	9(20.1)	24(53.3)	10(22.2)	1(2.2)	45(100)				
전체	4(4.0)	22(22.3)	43(43.4)	26(26.3)	4(4.0)	99(100)	*df*=4			
구분	그룹 과제 참여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남	1(7.4)	12(22.2)	19(33.2)	13(31.5)	6(16.7)	54(100)	12.59	3.51	.95	1
녀	1(6.7)	7(15.6)	15(31.1)	15(33.4)	5(17.8)	45(100)				
전체	7(7.1)	19(19.2)	34(32.3)	28(32.3)	11(17.2)	99(100)	*df*=4			
구분	발표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남	1(1.9)	10(18.5)	24(44.4)	10(18.5)	9(16.7)	54(100)	5.87	3.46	1.02	3
녀	1(2.2)	4(8.9)	14(31.1)	16(35.6)	10(22.2)	45(100)				
전체	2(2.0)	14(14.1)	38(38.4)	26(26.3)	19(19.2)	99(100)	*df*=4			
구분	충실한 수업 준비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소극적	② 소극적	③ 보통	④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남	3(5.6)	4(7.4)	27(50.5)	14(25.9)	6(11.1)	54(100)	6.50	3.47	.94	2
녀	1(6.7)	2(15.6)	14(31.1)	21(33.4)	7(17.8)	45(100)				
전체	4(4.0)	6(6.1)	41(41.4)	35(35.4)	13(13.1)	99(100)	*df*=4			

www.kci.go.kr

이상의 <표 10>에 의하면, 대학 교육 수업활동 참여도 인식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그룹 과제 참여'에 (x^2=12.59, df=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그룹 과제 참여'와 관련된 수업활동 참여도는 장애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전반적인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에 대해 장애대학생들의 평균이 3.0 이상으로 높았다. 그 중 상대적으로 '그룹 과제 참여'(M=3.51, SD=.50)를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고, '토론 참여'(M=3.01, SD=1.07)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학습과정 인식은 아래의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개인 학습과정 인식

구분	강의 시간 질문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거의 하지 않음	③ 가끔	④ 자주	⑤ 항상					
남	5(9.3)	12(22.2)	25(46.3)	10(18.5)	2(3.7)	54(100)	5.30	2.94	.89	5
녀	1(2.2)	10(22.3)	20(44.4)	14(31.1)	0(0.0)	45(100)				
전체	6(6.1)	22(22.2)	45(45.5)	24(24.2)	2(2.0)	99(100)	df=4			
구분	소신 있는 의견 주장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거의 하지 않음	③ 가끔	④ 자주	⑤ 항상					
남	3(5.6)	16(29.6)	19(35.2)	13(24.0)	3(5.6)	54(100)	5.16	2.96	.89	4
녀	1(2.2)	10(22.2)	23(51.2)	11(24.4)	0(0.0)	45(100)				
전체	4(4.0)	26(26.3)	42(42.4)	24(24.2)	3(3.1)	99(100)	df=4			
구분	어려운 학업문제 해결 시도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거의 하지 않음	③ 가끔	④ 자주	⑤ 항상					
남	1(1.9)	11(20.4)	26(48.1)	12(22.3)	4(7.4)	54(100)	7.42	3.24	.81	2
녀	0(0.0)	4(8.9)	21(46.7)	19(42.2)	1(2.2)	45(100)				
전체	1(1.0)	15(15.2)	47(47.5)	31(31.3)	5(5.0)	99(100)	df=4			
구분	학업과 교과관련 도서관 자료 검색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거의 하지 않음	③ 가끔	④ 자주	⑤ 항상					
남	8(14.8)	7(13.0)	22(40.7)	12(22.2)	5(9.3)	54(100)	8.89	2.99	1.02	3
녀	1(2.2)	12(26.7)	21(46.7)	10(22.2)	1(2.2)	45(100)				
전체	9(9.1)	19(19.2)	43(43.4)	22(22.2)	6(6.1)	99(100)	df=4			
구분	학업을 향한 자기 동기 부여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거의 하지 않음	③ 가끔	④ 자주	⑤ 항상					
남	0(0.0)	4(7.4)	17(31.5)	24(44.4)	9(16.7)	54(100)	1.46	1.46	.79	1
녀	0(0.0)	1(6.8)	15(15.6)	22(31.2)	7(33.4)	45(100)				
전체	0(0.0)	5(7.2)	32(19.2)	46(32.3)	16(32.3)	99(100)	df=4			

www.kci.go.kr

이상의 <표 11>에 의하면, 개인 학습과정에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개인 학습과정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생들의 개인 학습과정에 대한 부분은 '학업을 향한 자기 동기 부여' (M=3.74, SD=.79)가 가장 높이 인식되었고, '강의시간 질문' (M=2.94, SD=.89)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다.

그 다음으로,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2)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업수행 적응력인식

<표 12> 대학생활 만족도 인식

구분	대학생활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남	8(9.3)	7(9.3)	20(33.2)	19(31.5)	0(16.7)	54(100)	6.59	3.14	1.00	3
녀	2(4.4)	4(13.3)	15(31.1)	22(33.4)	2(17.8)	45(100)				
전체	10(10.1)	11(11.1)	35(35.4)	41(41.4)	2(2.0)	99(100)	df=4			
구분	대학 강의 질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남	5(9.3)	9(16.7)	20(37.0)	18(33.3)	2(3.7)	54(100)	5.42	3.21	.94	1
녀	0(0.0)	7(15.6)	15(33.3)	21(46.7)	2(4.4)	45(100)				
전체	5(5.1)	16(16.2)	35(35.3)	39(39.4)	4(4.0)	99(100)	df=4			
구분	교육과정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남	4(7.4)	10(18.5)	28(51.9)	11(20.4)	1(1.8)	54(100)	12.75	3.16	.82	2
녀	0(0.0)	2(4.4)	21(46.7)	21(46.7)	1(2.2)	45(100)				
전체	4(4.0)	12(12.1)	49(49.6)	32(32.3)	2(2.0)	99(100)	df=4			
구분	교육환경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남	8(14.8)	8(14.8)	22(40.7)	13(24.1)	3(5.6)	54(100)	11.43	3.10	1.00	4
녀	0(0.0)	8(17.8)	15(33.3)	21(46.7)	1(2.2)	45(100)				
전체	8(8.1)	16(16.2)	35(37.4)	34(34.3)	4(4.0)	99(100)	df=4			
구분	대학 내 대인관계 (선후배 관계)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남	8(14.8)	6(11.1)	20(37.0)	17(31.5)	3(5.6)	54(100)	2.94	2.97	1.13	5
녀	6(13.3)	9(20.0)	17(37.8)	9(20.0)	4(8.9)	45(100)				
전체	14(14.1)	15(15.2)	37(37.4)	26(26.3)	7(7.0)	99(100)	df=4			

www.kci.go.kr

먼저 이상의 <표 12>에 의하면, 대학생활 만족도 인식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x^2=12.75, df=4)과 '교육환경'(x^2=11.43, d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대학 생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대학 강의 질'(M=3.21, SD=.94)이 가장 높았고, '대학 내 대인관계(예: 선후배 관계)'(M=2.97, SD=1.13)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

구분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남	4(7.4)	12(22.2)	25(46.3)	10(18.5)	3(5.6)	54(100)	13.28	3.11	.86	3
녀	0(0.0)	4(8.9)	22(48.9)	19(42.2)	0(0.0)	45(100)				
전체	4(4.0)	16(16.2)	47(47.5)	29(29.3)	3(3.0)	99(100)	df=4			
구분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남	3(5.6)	12(22.2)	25(46.3)	12(22.2)	2(3.7)	54(100)	12.27	3.21	.88	2
녀	0(0.0)	5(11.1)	14(31.2)	24(53.3)	2(4.4)	45(100)				
전체	3(3.0)	17(17.2)	39(39.4)	36(36.4)	4(4.0)	99(100)	df=4			
구분	강의와 과제의 어려움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남	3(5.6)	16(29.6)	19(35.2)	16(29.6)	0(0.0)	54(100)	3.86	3.01	.92	5
녀	1(2.2)	10(22.2)	16(35.6)	16(35.6)	2(4.4)	45(100)				
전체	4(4.0)	26(26.3)	35(35.4)	32(32.3)	2(2.0)	99(100)	df=4			
구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함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남	0(0.0)	4(7.4)	15(27.8)	25(46.3)	10(18.5)	54(100)	5.60	3.60	.88	1
녀	0(0.0)	9(12.0)	12(26.7)	21(46.6)	3(6.7)	45(100)				
전체	0(0.0)	13(13.1)	27(27.3)	46(46.5)	13(13.1)	99(100)	df=4			
구분	다른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쉬움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남	2(3.7)	7(13.0)	31(57.3)	13(24.1)	1(1.9)	54(100)	2.63	3.02	.82	4
녀	2(4.4)	11(24.5)	20(44.4)	11(24.5)	1(2.2)	45(100)				
전체	4(4.0)	18(18.2)	51(51.6)	24(24.2)	2(2.0)	99(100)	df=4			

www.kci.go.kr

〈표 13〉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 (계속)

구분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 명(%)					전체	x^2	M	SD	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남	8(14.8)	18(33.3)	20(37.0)	6(11.2)	2(3.7)	54(100)	4.51	2.63	.91	6
녀	3(6.7)	13(28.9)	23(51.1)	6(13.3)	0(0.0)	45(100)				
전체	11(11.1)	31(31.3)	43(43.4)	12(12.2)	2(2.0)	99(100)	df=4			

이상의 <표 13>에 의하면, 대학생활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 (x^2=13.28, df=4)와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 (x^2=12.27, d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대학생활 학업수행 적응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에 대한 인식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함' (M=3.60, SD=.88)이 가장 높았고, '효율적 시간배분' (M=2.63, SD=.91)이 가장 낮았다. '다른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쉬움'과 '강의과제의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해 낮게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표본 t 검증 분석을 통해서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t 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의 수가 카이검증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 <표 14>에 제시되었다.

〈표 14〉 성별에 따른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 인식차이

구분	집단	사례수	M	SD	t
토론참여	남	54	2.93	1.13	−.84
	여	45	3.11	1.01	
질문제기	남	54	3.06	1.00	.19
	여	45	3.02	.78	
그룹 과제 참여	남	54	3.28	1.02	−2.68**
	여	45	3.78	.80	
발표	남	54	3.30	1.02	−1.81
	여	45	3.67	1.00	
충실한 수업 준비	남	54	3.30	.96	−2.10*
	여	45	3.69	.87	

*p<.05, **p<.01

이상의 <표 14>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 수업활동 참여도 인식에서 '그룹 과제 참여'는 남자의 평균 3.28(SD=1.02), 여자의 평균 3.78(SD=.80)

www.kci.go.kr

로 나타났으며, '충실한 수업 준비'에서는 남자의 평균 3.30(SD=.96), 여자의 평균 3.69(SD=.87)로 나타났다. '그룹 과제 참여'(t=−2.68, p<.01)와 '충실한 수업 준비'(t=−2.1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여자 장애대학생들이 남자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그룹 과제 참여'와 '충실한 수업 준비'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개인 학습과정 인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아래의 <표 15>과 같다.

〈표 15〉 성별에 따른 개인 학습과정 인식차이

구분	집단	사례수	M	SD	t
강의 시간 질문	남	54	2.85	.96	−1.07
	여	45	3.04	.80	
소신 있는 의견 주장	남	54	2.94	.89	−.19
	여	45	2.98	1.00	
어려운 학업문제 해결 시도	남	54	3.13	.75	−1.53
	여	45	3.38	.89	
학업과 교과관련 도서관 자료 검색	남	54	2.98	.68	.126
	여	45	2.96	1.16	
학업을 향한 자기 동기 부여	남	54	3.70	.82	−.463
	여	45	3.78	.74	

이상의 <표 15>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개인 학습과정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균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여자 학생들이 남자 장애대학생보다 개인 학습과정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남녀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 인식차이

구분	집단	사례수	M	SD	t
대학생활	남	54	2.93	1.04	−2.41*
	여	45	3.40	.90	
대학 강의 질	남	54	3.06	1.02	−1.84
	여	45	3.40	.81	
교육과정	남	54	2.91	.88	−3.60**
	여	45	3.47	.63	
교육환경	남	54	2.91	1.10	−2.16*
	여	45	3.33	.80	
대학 내 대인관계 (예: 선후배 관계)	남	54	3.72	.90	.90
	여	45	3.56	.94	

*p<.05, **p<.01

www.kci.go.kr

이상의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의 만족도 인식은 '대학생활'에서 남자는 평균 2.93(*SD*=1.04), 여자는 평균 3.40(*SD*=.90)로 나타났고, '교육과정'에서 남자는 평균 2.91(*SD*=.88), 여자는 평균 3.47(*SD*=.63)로 나타났으며. '교육환경'에서 남자는 평균 2.91(*SD*=1.10), 여자는 평균 3.33(*SD*=.80)로 나타났다. '대학생활'($t=-2.41$, $p<.05$), '교육과정'($t=-3.60$, $p<.01$), 그리고, '교육환경'($t=-2.1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으로 여자 학생들이 남자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17>은 남녀 성별에 따른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17> 남녀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차이

구분	집단	사례수	*M*	*SD*	*t*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	남	54	2.93	.97	−2.42*
	여	45	3.33	.64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	남	54	2.96	.91	−3.22*
	여	45	3.51	.76	
강의와 과제의 어려움	남	54	2.89	.90	−1.58
	여	45	3.18	.91	
학업에 집중	남	54	3.76	.85	2.06*
	여	45	3.40	.89	
다른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쉬움	남	54	3.07	.77	.71
	여	45	2.96	.88	
효율적 시간 배분	남	54	2.56	1.00	−.85
	여	45	2.71	.79	

*$p<.05$

이상의 <표 17>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은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인지'에서 남자는 평균 2.93(*SD*=.97), 여자는 평균 3.33(*SD*=.64)으로 나타났고,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에서 남자 평균 2.96(*SD*=.91), 여자 평균 3.51(*SD*=.76)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집중' 부분에서 남자는 평균 3.76(*SD*=.85), 여자는 평균 3.40(*SD*=.89)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인지'($t=-2.42$, $p<.05$),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t=-3.22$, $p<.05$), 그리고 '학업에 집중'($t=2.06$,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인지'와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 부분에서 더 높이 인식한 반면, 남학생들은 '학업에 집중' 부분에서 여학생들보다 더 높이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www.kci.go.kr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을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석한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수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장애대학생 응답자의 낮은 특별전형 진학률이다(36.4%). 이것은 김미선, 박중휘(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것은 아마 장애대학생과 학부모의 '특별전형'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진학지도 관계자는 장애대학생과 관련가족들에게 '특별전형'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진학여부 결정과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부모의 영향이 평균 3.29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장애대학생들의 대학 교육으로의 접근과 기회제공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녀들의 진학계획을 세울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대학진학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 강의와 프로그램 경험에 있어서 장애대학생들은 '6개에서 10개 사이'의 수업을 '19학점 이상'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적지 않은 분량의 강의와 학점을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일반학생들과 경쟁하는 학업환경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김형일, 2012; 최지영, 2009).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은 강의를 수강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할 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 및 수업의 핵심인 대학 강의와 학점 이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의 다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예를 들어 적절한 수강계획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여주고(김형일, 2012; 최지영, 2009) 수업 부담을 잘 조절함으로써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이러한 대처는 학사 경고의 위험성도 낮추어 주며, 성적차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김미선, 박중휘, 2013)의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시간부족에서 기인되는 의미 있는 대학 내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김형일, 2012; 최지영, 2009).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공 강의 수강'에만 치중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어서 전공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의 참여가 더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이나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과차원에서 권장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장애대학생의 교육비와 근로경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등록금 마련을 걱정하는 가운데 97%가 113만원에서 800만원의 등록금을 납입한다고 응답한 그들의 62.6%는 장학금 수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8.7%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있다'라고 대답한 소수의 학생들 중 2%만이 '교내 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기에 재정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분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체계의 재검토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 확대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먼저 학생들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후, 교내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구(김미선, 박중휘, 2013)를 충족시켜 주는 봉사근로, 점역근로, 시험기간 캠퍼스 내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마봉사 등과 같은 교내근로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 장애대학생 모두의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의 수업활동 참여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M \geq 3.0$)이었다. 이 결과는 김형일(2012)과 최지영(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활동 참여를 위한 노력을 다분히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그룹 과제 참여(M=3.51)'에 대해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고, '토론 참여'(M=3.01)는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와 최지영(2009)의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장애대학생들의 '토론참여'에 대한 낮은 인식은 대학 내의 빠른 수업진행이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하고 의사를 조리 있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된다.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교육 수업활동 참여도'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룹 과제 참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자 장애대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룹 과제 참여'를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Felson과 Trudeau(1991)의 연구결과(예, 팀 프로젝트 참여 혹은 충실한 수업준비)와 박순희(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박순희(2012)의 연구의 결과처럼 본 연구의 장애 여자 대학생들도 능동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학습활동을 남학생보다 더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지향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여학생들에게 '그룹 과제 참여활동'은 적절한 대학 수업활동 참여형태라고 여겨진다. 더 나아가 '그룹 과제 참여활동'은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서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남학생들도 이러한 수업활동으로의 참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장애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www.kci.go.kr

학습과정'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남녀 장애대학생들은 '학업과 교과 관련 도서관 자료 검색', '소신 있는 의견 주장', '강의시간 질문'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정작 도서관 속의 자료들을 직접으로 찾아내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누리는 유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자료검색을 위한 특강'이나 '일대일 자료검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접할 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도서관과 학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에게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교재 확보 문제도 학과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김미선, 박중휘, 2013). '소신 있는 의견 주장'과 '강의시간 질문' 부분의 낮은 인식은 앞서 나온 결과에서 언급된 장애대학생들의 낮은 '토론참여'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주장하고 묻는 기술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반영한다.

연구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상($M \geqq 3.0$)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대학 내 대인관계(예: 선후배 관계)'의 인식(M=2.97)은 낮았다. 이것은 '대학 내 대인관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도출한 김형일(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과중한 과제와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동아리 활동도 자제하고 늦은 밤까지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해 가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박재국(2008)과 윤점룡, 김주영(2002)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일반대학생의 장애대학생을 향한 낮은 이해와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대학생과 진정한 정서적 교감(김미선, 2012; 김자경, 강혜진, 2008)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이 대학 내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예; '친구 만들기', '선배와의 대화', '장애학생을 위한 캠프', '간담회', '사제동행' 등).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장애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인식은 '교육과정', '교육환경'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lson과 Trudeau(1991)의 연구에서 처럼 본 연구의 장애 여자 대학생도 '교육과정'과 '수업준비' 부분을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여자 장애대학생들은 앞서 '대학교육 수업활동'의 하위영역, '토론참여', '그룹 과제 참여', '발표', '충실한 수업 준비' 부분들도 남학생들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적극성으로 인하여 '대학생활 만족도(교육과정과 교육환경)'도 남학생보다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전체적인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 인식과 관련 남녀 장애대학생들은 '학업

www.kci.go.kr

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는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지영(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반면, 전체적으로 남녀 장애대학생 모두 '효율적 시간 배분'과 '다른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쉬움'에서는 낮은 인식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학생들의 과도한 '강의 수 및 학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본 연구의 학생들 중 '강의와 과제의 어려움'에 단지 30.3%의 학생들만이 '(전혀)그렇지 않다'로 인식했고, 69.7%은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인식했다. 학기 중 과중한 학업의 부담을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지영(2009)의 질적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일대일 교수법 프로그램(tutoring)'과 같은 지원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카이검증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한 성별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과 관련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와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에서 남녀 장애대학생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와 '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선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볼 때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이 '대학 교육 수업활동'과 '개인 학습과정' 또는 '대학생활 만족도'를 인식하고 있는 편이어서 '대학 학업수행 적응력('학업관련 교수진의 기대치 이해', '정확한 목표의식과 대학 재학 이유 인지')'도 더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Ku & Chung, 2011; O'Brien, 2011; Vogel, 1990)의 결과와 같이 앞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이 외의 변인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설문지의 응답자가 학생그룹만으로 제한되었다. 학생들의 가족이나 제3자(예: 교우, 교수진)의 응답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넓은 시각을 연구에 포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과와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 문항이 제한적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전형 입학에 관한 실태 파악과 대학진학지도 여부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 대학진학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대학생 외에 그들의 가족이나 교우, 교수진을 포함한 대학생활 및 수업의 실태와 인식의 조사가 추후에 진행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의 대학생활 및 수업과 관련된 실태와 인식 조사에 있어서 설문문항과 하위 영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

www.kci.go.kr

의 활발한 수업활동을 예측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그 변인들을 바탕으로 남녀 장애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대학교육 지원 형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순원 (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배제에서 포용으로. **평생교육, 19**(1), 55-84.

김동일, 이태수, 김익수, 김혜영, 박유정 (2004).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 52,** 5-24.

김미선 (2012).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과 교육: 교육권 그 너머. **시각장애연구, 28**(4), 97-117.

김미선, 박중휘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29**(2), 1-22.

김미정 (2011).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 조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김용욱, 김남진, 우이구 (2008).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연구 II.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305-330.

김자경, 강혜진 (2008).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 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용 비교.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1**(2), 211-225.

김형일 (2012).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65-190.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9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2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남중수 (2010).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개인 심리 특성변인, 대학 생활 특성변인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순희 (2012). 성별과 학교급별로 본 맹학생의 학습양식과 비판적 사고력 성향. **시각장애연구, 28**(2), 155-171.

박재국 (2008). 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109-125.

박화문 (2003).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제 현상과 과제. **중복·지체부자유연구, 41,** 21-36.

박환보, 양희중, 김기석 (2009). 고등교육 보편화의 두 사례. **한국비교교육학회, 19**(1), 1-23.

백유순 (2005). 장애 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 요구 및 지원 실태와 만족도 조사: 청각장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51-169.

세계인권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trieved on February 13th, 2014 from http://www.google.co.kr.

이경준 (2008).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www.kci.go.kr

103-130.
이근영,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부모의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37-264.
이현수 (2009). 장애대학생들의 교육권의 고찰과 개선방안. **장애인 인권과 재난관리 국제회의 세미나 자료집,** 31-43. 9월 25일. 부산 부경대학교.
우정현 (2009). 원격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D 사이버대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25**(6), 161-183.
윤상은, 이달엽, (2011). 지체장애인의 고학력화가 직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한 탐색.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4), 47-69.
윤점룡, 김주영 (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시이후 학내 지원체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정동영 (2012). 미국의 지적장애인 중등관정 이루 교육현황과 함의. **지적장애연구, 14**(4), 27-53.
정정진, 이해균 (2006). 대학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507-533.
채희태 (2011). 장애대학생의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직업재활학회, 21**(2), 73-93.
최민숙, 김성애, 박은혜 (2002). 장애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의 인식. **특수교육, 1,** 133-157.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헌법 제10조 (1987). **대한민국헌법.** Retrieved on March 15th from http://www.law.go.kr.
현 주, 김양분, 류한구, 박현정, 김태은 (2006). **KEDI 종합검사도구개발: 기술보고서 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Bremer, C. (2008). Post-secondary educa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at families should know. *Impact: Feature Issue on Employment and Women with Disabilities, 21*(1), 24-25.
Felson, R. B., & Trudeau, L. (1991). Gender difference in mathematics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Quartely, 54*(2), 113-126.
Ku. & Chang. (2011). The effect of academic discipline and gender difference on Taiwanese college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in web-based learning environment.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0*(3), 265-272.
O'Brien, K. (2011). *An investigation of the academic prepar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planning to attend a four year college or university.*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 S. A.
O'Day, B. & Foley, S. (2008). What do we know, and not know, about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force? *Impact: Feature Issue on Employment and Women with Disabilities, 21*(1), 4-6.

www.kci.go.kr

OECD. (2001). *Knowledge and skills for life: First results from PISA 2000.* Paris: OECD publications.

Pintrich, P. R., Smith, D. A. F., Garcia, T., & McKeachie, W. J. (1993).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LSQ).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 801-813.

Vogel, S. A. (1990). Gender differences in intelligence, language, visual-motor abil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3*(1), 44-52.

www.kci.go.kr

The Actual Condition and Gender Awareness on College Life · Course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i Kyung Lee
BK21+ Research 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ungwoo Ahn
Professor in Special Education Program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gender awareness on college life · course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Ninety nine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enrolled in 25 colleges after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college entrance exam, course work, work experience, overall awareness in participation to college education process, and overall satisfaction & adaptation on college education. For the data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mean, *SD*,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sample *t* test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36.4% of the students entered into colleges through special screen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eported taking between six and ten courses. Only 26.3% of the students reported their work experience outside school and 62.6% of them responded that they were not able to receive scholarships.; (2) Through both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sample *t* tes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found in 'group project participation', 'satisfaction level in college life, course, & environment', 'goal and reason to enrollment', and 'understanding academic expectation of faculty'. A detailed discussion regarding support for the students within the college campus i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llege Education, College Life · Courses, Actual Condition, Gender, Awareness

논문 접수: 2014. 05. 04 심사 시작: 2014. 05. 09 게재 확정: 2014. 06. 20

www.kci.go.kr